

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열어제끼는 하루가 나른해진다

스 처 가는 바람이 검게 그늘 얼굴을 스친다. '더위'를 손님으로 동반하는 바람이다. 그렇더라도 상쾌하게 다가오는 아침이다. 온종일 이 기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기대치이며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



박 여 범

영북중학교 · 시인 문학박사 · 문학평론가

"박 박사 오늘 장난 아는데....." "....." "그렇지 장난 아니야 오늘 조심조심 아침부터 아 짜증 지대롭다....." "....." "그래도 올 박 박사 개척해, 개척해 다나가 그러니까 이 정도지....." "....."

입 안 가득 진한 아메리카노 향에 취하려는 순간이었다. '다가나 님으로 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어서 '바라나 님으로부터 메시지가.....' 모너터 중앙을 차지한 메시지에 묘한 감정이 실리며, 앞과 옆의 동료들 바라다보았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타이핑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양새다.

나름 건조한 직장인 무료함과 선배로서의 작은 임무를 수행하고자 노력했다. 그런데, 결국 돌아온 것은 초대하지 않은 화려한 메시지였다. 늘 얼굴을 마주 보고 웃으며 인사를 나누었던 수많은 추억(?)이 메시지와 겹치는 그림이 그려진다.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밀려오는 배신감에 허전함이 밀려온다. 기가 막힌 현실이다. 어쩔 것인가?

스 처 가는 소슬바람에 인연의 끈을 부여잡고 꿈틀꿈틀 맴돌며 내달리는 복직미묘 모호함에 흔들리는 동공이 부딪스러워 미주하지 못하고

오늘도 서성이는 평온의 시계추가 일도 없는 영혼과 흔들리며 동행해

세월아 세월아 춘향아 월매야 너도 가고 나도 가는 세월에 어쩔 리냐 다다닥 찌지직 밀줄 굵기 눈물 콧물 거래내역 줄줄이 아롱아롱 새겨지고

스월스월 차오르며 꼬물꼬물 자라나는 마이너스 통장에는 연인만이 쌓여가고 세상 좋은 이것 저것 다 합해도 살아 있음에 살아내야 함께 등글등글 감사함으로 이보다 더 예쁠 수 없는 영두의 붉은 속삭임에 문을 열어제끼는 하루

가 나른해진다 -박여범 (열어제끼는 하루가 나른해진다) 전문-

위의 시처럼, 현대인의 소통 창구인 SNS의 사용에서 '메시지 사고'는 종종 발생한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덮기에 급급한 사례가 많다. 이런 경우, 가져올 수 있는 미사여구는 다 동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로 모든 것을 회박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알면서도 자기 합리화에 급급한 것이 우리의 민낯이다. 이미 얼어진 풀은 주위 답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인연을 끊을 생각이 아니라면, 무슨 방법이든 강구해야 한다. 그 해결의 꼭지점을 찾아가는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때로는 모르는 척도 해 주고, 은근 슬쩍 자리를 비워 주는 방법도 좋다. 때로는, '세월아 세월아 춘향아 월매야 너도 가고 나도 가는 세월에

어쩔 리냐' 처럼 다 털어버려야 한다.

메시지는 눈에 넣어 기억의 통장에 '다다닥 찌지직 밀줄 굵기 눈물 콧물 거래내역 줄줄이 아롱아롱 새겨지고', '스월스월 차오르며 꼬물꼬물 자라나는 마이너스 통장에는 연민만이 쌓여' 가고, 세상 좋은 이것 저것 다 합해도 살아 있음에, 살아내야 함께, 감사함으로, 문을 닫는다.

함치게 울리던 '다다닥' 자판 소리가 멎었다.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다.

'다가나 씨', '바라나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눈빛 교환 중이다. 잠시 후, 옆자리의 다가나 씨가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을 얼버무리며 들어간다. '죄송합니다' 한마디 없이,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 늘 그랬었다. 당연하다'는 말투다. 좋은 게 좋은 것인가? 의문부호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예쁠 수 없는 영두의 붉은 속삭임에 문을 열어제끼는' 나른해지는 하루다.

"저, 잠깐만 컴퓨터를 사용해도 될까요?" "아니, 왜? 뭐 일인데? 당황스럽네. 아침부터 말이야?" "제 컴퓨터가 문제가 있어서 침이 얼리지 않네요? 급하게 복사할 것이 있어서요?" "아니, 왜 그래, 다가나 씨답지 않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사설

완주군의 국내 최대 수소 충전소 준공

국내 최대의 수소 충전소가 준공되었다.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발 소식이다. 한 시간에 22대의 수소 승용차를 충전할 수 있다니 그 기능이 대단하다. 그동안 수소자동차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리라는 기대가 크다. 완주의 수소 충전소 준공은 그래서 그 의미가 크다.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안호영 국회의원, 김성주 국회의원, 송성환 도의회 의장, 금정훈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문정훈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운집한 것은 그래서였을 터이다.

지역 발전은 도민 모두의 열망이다. 전북도는 발전의 밝은 소식을 계속 들려주어야 한다. 그 밝은 소식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다다익선이 아닐 수 없다. 전북도는 코로나 확산 방지와 관련해서 전국적인 모범 사례를 보여주었다. 그처럼 지역 발전 분야에서도 성공을 거두어야 한다. 최근 들어서 전북도가 도민에게 연달아 밝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서 마음이 든든하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너와 내가 따로 없음을 완주 수소충전소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지역 발전은 전북도만 이끌어 가는 게 아니다. 지역 경제 살리기를 말할 때마다 요구하는 것이 있다. 우리 전북의 현안에 정부 부처가 눈길을 돌리도록 해야겠다. 전북의 현안이 다른 지자체의 그것에 밀려 후순위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본보는 지난날 여러 번 말한 게 있다. 군산 현대조선소 재가동이 속히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군산의 영세 기업들이 합쳐서 조신소 가동이 어렵다면 미련을 속히 접어야겠다고 말했다. 이제 전기자동차는 수소 자동차든 생산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며 말이다.

발전 현안에 추진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 지역은 일자리가 늘 부족하다. 그래서 실업자들이 다른 광역 시도보다 많다. 지역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작은 사업이라도 착각이 담뽀뽀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발전은 도모한다고 할 수가 없다. 완주군의 수소충전소 가동에 기대감이 넘쳐 거둬 추구하고 있다.

전북도는 전북 대도약을 일자리로 말해야

전북도는 지난날 대도약의 시대를 열었다고 여러 번 말했다. 도지사 직접 말한 그 발언들은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그런데 많은 시일이 지난 지금 여기 다시 짙어볼 게 있다. 대도약은 한 두 가지 현안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늘 요구하는 바이지만 전북의 대도약은 많은 일자리로 말해야 한다. 그래야 공감을 얻을 수 있다. 도지사를 비롯해 고위 관계자들은 전북 대도약의 성격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도지사는 도민을 먹여 살릴 기대로 탄소산업과 농생명산업을 꼽았다. 전북도가 그렇게 선택한 것은 탄소산업의 미래 전망을 좋게 보았을 것이고, 농도 전북의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였을 터이다. 그리고 부가 가치를 지닌 블루오션이라 판단했기에 그랬을 터이다. 그래서 지금 이 지면을 통해 다시 하고 싶은 말은 분명하다. 전북도는 대도약을 위해 탄소 산업과 농생명 분야에 많은 힘을 투입해야 한다. 그 때 그쪽에서 많은 일 자리를 창출시켜야 한다. 아무리

거창한 미래 비전을 말한다고 일자리 창출이 없으면 곤란하다. 젊은이들은 물론이고 일반 도민에게 일자리 창출은 최고 가치이다. 일자리 창출이 없는 미래 비전은 헛된 말이 가득한 만화 속의 말 풍선 같은 것이다. 그 어느 때고 일자리 창출을 관심사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평소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겠다. 일자리 창출이 있어야 인구 유출을 막고 더 나아가 인구 유입도 있을 거 아니냐는 이야기다. 다시 강조하거나 전북도는 대도약 의지를 일자리로 말해야 한다. 일자리로 말해야 한다는 격려는 결코 틀린 것이 아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탄소산업을 백년 먹거리 사업으로 키우겠다고 여러 번 약속한 바 있다. 도민들은 우리 전북이 탄소산업에 관련한 한국 최고의 산두주자이기를 바라고 있다. 탄소 분야를 백년 먹거리 사업으로 키워야 할 책임이 있음을 도지사를 비롯해 고위 관계자들은 잊지 말아야겠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단 한명도 잃을 수 없다"



3일(현지시간)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시내에서 집회가 열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쓴 한 여성이 "단 한 명도 잃을 수 없다"라고 쓰인 '니 우나 메노스' 손팻말을 들고 있다.

무릎 꿇고 구호 외치는 영국 시위대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화이트홀에서 지난달 25일 미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경찰관의 과잉 대응으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려 시위대가 무릎을 꿇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